

# “신규 투자로 일자리 늘고 지역기업들에 많은 기회 제공”

##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

상인, 즉 장사꾼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긴다. 좋은 물건을 싸게 확보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수요를 일으켜 파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흔히 상도의(商道義)라고 한다. 상거래를 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없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으며 어마어마한 부까지 일군 상인, 또는 상점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의 큰 복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갈 것이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른 상인, 상점, 아니 그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열전' 제69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는 춘추전국시대 재물을 늘려 부를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월나라의 신하였던 범려는 차이자피, 도주공 등으로 불리며 19년 동안 천금을 세 번이나 모아 유명해졌는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 역시 부유해졌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 사마천은 '부유하면 즐거워 그 덕을 행하는 표본'이라고 치하했다. 상인을 천대했던 조선시대, 거상(巨商)이라는 이



름에 벼슬도 얻은 임상옥은 늘 계영배(戒盈杯)를 보며 자신을 경계했다. 자신의 재물이 지나칠 것을 염려한 것이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며, 현재를 살펴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95년 8월 최초로 광주의 지역법인으로 출발해 30년 간 호남 최대도시 광주 상업의 핵심으로

광주터미널 등 개발로 매장 3배 이상 늘어나고 브랜드 500개 증가  
갈수록 커지는 지역자본 역의 유출...새로운 변신·혁신으로 막을 것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광주신세계의 이동훈(56·사진) 대표를 만났다. 호남의 쇠락은 곧 타 지역 소비자의 쇼핑 감소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전남, 전북, 경남에서 찾아왔던 고객들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대전, 대구, 부산 등 다른 광역시들의 백화점들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였지만, 광주는 정체돼 있었다는 것이다. 호남 최대의 장사꾼, 이 대표가 광주신세계의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광주를 흥하게 하는 법, 백화점 이용법, 성공한 투자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신세계, 호남에서는 최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광주신세계의 매출은 지난해 8500억원 정도다. 전국 백화점 가운데 14위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신세계 강남점이 3조원을 돌파했으니까 그 4분의1이다. 1995년 4월 오픈할 당시 2000억원이 안 됐으니까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이제 새로운 변신을 해야 할 때다.

▶광주신세계가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결국 백화점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는 브랜

드들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서 결판이 난다. 기본적으로 매장 면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신세계의 매장 면적은 전국에서 80위권이다. 브랜드도 530여개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너무도 다양한 지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브랜드를 찾아 광주시민도 서울 백화점을 수시로 가는 시대다.

▶좀 더 들어가보자. 백화점 고객의 역외유출이 심각한가.

▲신세계 전국 지점 매출을 살펴보면 광주-전남 시도민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의 지점에서 3000억원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다른 백화점까지 포함하면 5000억원까지 보고 있다. 백화점이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리딩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02년 1층에 명품 매장을 설치하면서 광주신세계의 매출이 그야말로 퀀텀 점프(Quantum Jump), 대약진을 했다. 이제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할 시기다.

▶광주신세계의 새로운 길이 광주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광주신세계에는 30년 근속한 직원들이 수도적이다. 유통업 종사자의 경우 고임금까지는 아

니지만 전문 자격이 없어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누구나 성실하게 근무하면 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 브랜드가 500개 증가하면 일자리 1500개가 생긴다. 매장만이 아니라 부속 시설까지 합치면 2000개 이상이다. 물류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긴다. 광주신세계는 지역법인으로 30년 동안 변함없이 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을 도와왔으며, 앞으로 더 그렇게 할 것이다. 광주신세계의 지역 기여 규모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 지역 경제에 유무형으로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부한다.

▶광주신세계의 새로운 길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다.

▲광주신세계가 1995년 8월 개점한 뒤 2002년 성장했는데, 시가총액이나 주가는 답답한 수준이다. 너무도 우량한 기업이 유보금을 2400억원이나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주주들의 불만도 있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광주은행, 미 포브스 '세계 최고 은행' 한국 3위

광주은행이 미국 경제지 '포브스'와 'CNBC'가 선정하는 '2024 세계 최고 은행(World's Best Banks)' 분야 국내 3위를 기록했다. 포브스와 CNBC는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와 함께 전 세계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4년 세계 최고 은행'과 '2024 아시아 최고 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포브스는 미국·영국·일본 등 33개국 4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403개 은행을, CNB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200개 은행을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은행 평판을 중심으로 실시했던 조사에서 벗어나 ▲신뢰성 ▲이용약관 ▲고객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금융 자문 등 5가지를 직접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와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광주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은행 중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국내 3위에 선정됐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3위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글로벌 기준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초복 맞아

### 9일부터 15일까지

### 보양식 특가 이벤트

광주신세계는 초복(7월 15일)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보양식 특가 이벤트'를 개최한다.

광주신세계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장어와 전복을 특가에 선보이고, 신세계백화점 앱을 통한 쿠폰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여수와 고흥 연안바다에서 잡은 제철 갯장어와 지역 양어장에서 1년간 양식한 민물장어, 완도 전복 등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인 갯장어(500g)를 3만9000원에, 민물장어는 1만6000원대, 전복(3미)은 2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벤트 개시 전날인 8일 오후 8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앱을 통해 쿠폰을 다운받으면 상품들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또 신세계백화점 앱을 통해 갯장어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와 갯장어 사부사부 조리법, 갯장어로 유명한 여수시 로컬 맛집 소개 등의 콘텐츠도 제공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 자동차 상반기 수출 370억달러 역대 최대 경신...미국 수출 '절반'

'수출 효자'로 불리는 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다시 쓰면서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을 '7천억달러 고지'로 쌓아올리고 있다.

급성장하던 전기차 시장이 수요 정체로 주춤한 가운데에서도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선전하면서 올해 전체 수출 전망을 밝히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상반기(1~6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370억1000만달러(약 51조200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기록이다. 자동차 수출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4년 252억3000만달러(약 34조9000만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해 356억5000만달러(약 49조3000만원·전년 동기 대비 46.5%↑)로 9년 만에 최고 실적을 경신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이 기록마저 넘어서며 수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2021년부터 상반기 기준으로 4년 연속 전년 대비 수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상의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시작 인재육성아카데미와 미취업 청년 60명 대상 직무역량 교육



지난 2일 열린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입학식에서 광주상의와 인재육성아카데미 관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지역 대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공회의소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상의는 7일 "광주상의와 (사)인재육성아카데미가 2024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사전직무교육 상반기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무 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경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광주상의가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로 선정됐고, 인재육성아카데미는 광주지역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자 110명에 대한 면접을 거쳐 경험 필요성과 참여의지가 높은 60명의 청년을 최종 선발했다.

사전 직무교육은 참가자가 기본직무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스마트팩토리 생산관리 마스터과정'(32명), '홍보마케팅 마스터 과정'(28명)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초공통과정 20시간, 직무심화과정 60시간 등 총 80시간으로 구성된다.

지난 2일 개최한 일경험 프로그램 입학식에서 인재육성아카데미 강행욱 이사장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올바른 품성(Character), 전문성(Competence), 사명감(Commitment)을 갖춘 3C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민간보증회사 보다 20% 낮게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줄어든다

앞으로 초기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 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일 창립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12월부터 보증사업에 나서 민간보증회사 대비 20% 이상 낮게 보증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광주지방조달청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개최된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조달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세일글

### “미래차·AI 등 혁신성장 기업들 전략 지원”

#### 조우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장

조우주(사진) 신임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 조 본부장은 광주일고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사해 광주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혁신전략실 혁신전략팀장, 온라인수출처장, 기업금융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해외수출과 정책자금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영방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우수 벤처기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 것”

#### 이병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본부장

이병필(사진) 신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 이 본부장은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사해 인력지원처 일자리기획팀장, 전남동부지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 본부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 발



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남지역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전남도는 사·군·구 22곳 중 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 맞춤형 지원, 수출·판로 확대, 장기재직 유도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12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0	15 24 30 31 37	3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67,891,969 12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997,428 84
3	5개 숫자일치	1,508,409 3,007
4	4개 숫자일치	50,000 145,646
5	3개 숫자일치	5,000 2,443,423